



동작 착착... 마음 척척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의 이상화 등이 3일 러시아 소치 해안클러스터 아틀레티크 아레나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소치올림픽 D-2

지난해 네 차례나 세계기록을 갈아치운 '빙속 여제' 이상화(25·서울시청)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이색 기록'에 도전한다. 소치올림픽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가 열리는 아틀레티크 아레나 스키점프 센터는 해발 4m의 해안 지대에 지어진 데다 빙질도 좋은 편이 아니다. 아무리 네 번이나 기록을 갈아치우며 1년 사이에 여자 500m 세계기록을 36초94에서 36초36까지 끌어내린 이상화라도 다시 신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워낙 독보적인 레이스를 펼쳐 온 만큼 욕심을 낸다면 다른 기록에는 도전해볼 수 있다. 첫 번째가 트랙 신기록이다. 현재 아틀레티크 아레나의 여자 500m 트랙 기록 보유자는 이상화다. 지난해 3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2차 레이스에서 작성한 37초65다.

트랙 신기록·역대 올림픽 최대 격차 우승 도전 3연속 세계新·2위와 압도적 차이...전망 '맑음'

당시 이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화려하게 2012-2013시즌을 마무리한 이상화는 2013-2014시즌 월드컵에서 세 차례 연속 세계신기록을 세우는 등 한층 진보한 기량을 자랑했다. 이 기세를 잇는다면 아틀레티크 아레나의 트랙 기록을 갈아치우는 것도 가능한 전망이다. 다음으로 이상화가 도전해볼 만한 기록으로는 역대 올림픽 최대 격차 우승이다. 원래 한 차례 레이스만으로 승부를 가리던 여자 500m는 1998년 나가노 대회부터 1·2차 레이스를 치러 합산 기록으로 승부를 가려 왔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격차가 난 것은 1998년 나가노 대회로, 카트리오나 르메이톤(캐나다)이 1·2차 합계 76초60을 기록해 수잔 아우크(캐나다·76초93)를 0.33초 차이로 제쳤다. 이상화의 현재 페이스라면 이 기록을 넘어서고도 남는다. 지난해 같은 아틀레티크 아레나에서 열린 종목별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이상화는 1·2차 레이스

합계 75초34를 기록, 2위 왕베이싱(중국·76초03)과의 격차를 무려 0.69초로 벌리며 우승했다. 역대 올림픽 최대 격차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레이스였다. 이상화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76초09를 기록해 역대 가장 작은 격차인 0.05초 차이로 예니 볼프(독일·76초14)를 꺾고 첫 금메달을 목에 건 바 있다. 역대 올림픽 여자 500m 한 번의 레이스에서 가장 큰 격차가 난 것은 1972년 삿포로 대회의 앤 헤니(미국)로, 0.68초 차이로 우승했다. 올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 일곱 차례 500m 레이스를 펼쳐 한 차례도 놓치지 않고 우승한 이상화는 2위 선수와 평균 0.37초의 격차를 기록했다.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2차 대회에서 36초36의 세계기록을 작성할 때에는 2위 헤서 리처드슨(미국·36초90)과 무려 0.54초나 차이가 났다. 이 때를 포함해 0.40초 이상 격차를 벌린 레이스가 세 차례나 됐다. /연합뉴스

北, 소치 못간다

12년 만에...출전권 획득 실패

북한이 12년 만에 동계올림픽에 불참한다.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관계자는 4일 "북한이 이번 대회 출전권 획득에 실패한 데다 각 국제연맹(IF)에서 와일드카드도 받지 못해 선수는 물론 임원도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치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참가국 현황에는 북한을 소개하고 있지만 선수와 임원 명단은 게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막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불참하는 것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이후 12년 만이다. 북한은 이번 소치올림픽을 앞두고 와일드카드 출전이 예상됐으나 국제연맹은 끝내 출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북한이 소치올림픽에 불참함에 따라 대회 기간 남북 체육교류도 무산됐다. 한편 북한은 1964년 인스브루크 대회에서 은메달 1개(여자 스피드스케이팅 3000m), 1992년 알베르빌 대회에서 동메달 1개(여자 쇼트트랙 500m)를 차지했고, 2006년 토리노 대회와 2010년 밴쿠버 대회에 출전했으나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비상 꿈꾸는 만년 유망주 KIA 김주형

“브릿필·최희섭... 침침산중 1루 선점 전력질주로 돌파”



이제는 유망주 꼬리표를 떼어낼 때도 됐다. 그런데 올 시즌도 김주형에게는 만만치가 않다. 광주 동성고 출신의 내야수 김주형은 2004년 KIA의 1차 지명을 받은 대형 유망주였다. 고교 무대를 점령하며 제 2의 김동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11년 차가 되는 올 시즌에도 김주형의 입지는 애매하다. 선점해 놓은 자리도 없고 타자 외국인 선수의 직격탄까지 맞았기 때문이다. 지난 시즌 김주형은 81경기에 나와 0.241의 타율을 기록했다. 9개의 홈런과 함께 34타점을 만들었지만 김주형의 기대치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성적이다. 지난해 김주형은 선동열 감독의 '충격요법'에 따라 미국 애리조나 캠프 막바지에 중도 탈락했다. 일본 오키나와 대신 중국 징검다리 건너가서 시즌 준비를 해야 하는 등 캠프 기간 한·중·일·미 4개국을 도는 고행을 했고, 최희섭·나지완의 벽에 막혀 2군에서 시즌을 출발했다. 그러나 어렵게 맞은 기회에서 엔트리 연장포를 날리며 심상치 않은 출발을 했다. 1군 첫 경기에서 연타석 홈런을 때려내며 거포 본능을 발휘한 김주형은 잠시 침묵하기는 했지만 초반 0.458의 타율로 7타점을 만들며 팀 7연승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시즌 중반 상대의 바깥쪽 공략에 말리면서 고공행진을 하던 타율이 점점 떨어졌다. 마음이 급해지면서 추락은 가속화됐고 흑시나 하던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9월 들어 3개의 홈런포를 더하며 감을 잡는 것 같았지만 끝내 아홉수는 넘지 못하면서 두 자릿 수 홈런에도 실패했다. 수비에서는 한결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최희섭의 빈틈을 잘 메웠지만 확실하게 1루를 선점할 정도의 결과물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올 시즌에는 외국인 타자의 등장으로 브릿 필이라는 경쟁자도 더해졌다. 침침산중이지만 김주형은 답답하다. 불확실한 출발은 똑같은 설명이다. 김주형은 "외국인 타자로 직격탄을 맞았다고는 하지만 확실한 내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나의 노력과 준비다.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캠프를 치르고 시즌을 대비하고 있는 김주형은 "즐기는 게 최고다"를 외치고 있다. 김주형은 "캠프에서 1·3루 연습을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 타이밍을 잡기 위해 지난 시즌보다는 다리를 조금 더 들고 타격을 하고 있다"며 "너무 잘하려고 하기 보다는 즐기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부담감을 가지고 하기 보다는 재미있게 현실을 즐기고 준비를 하다 보면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타고난 파워와 스윙으로 무장한 1·3루 지원. 김주형은 우선 손에 꼽는 전력은 아니지만 시즌 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기도 하다. 김주형이 더 치열해진 캠프에서 올 시즌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